

기독교와 환경문제 - 열 재앙을 통한 하나님의 계시

배준웅(경북대 경북대 환경화학과)

환경의 위기

지구촌 곳곳이 기상이변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전 세계 곳곳에서는 허리케인으로 쓰나미로 온 도시가 초토화되고 수 십 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하고 수 십 억 달러의 경제적인 손실이 발생하였으며, 다른 한편에서는 가뭄과 폭염으로 사막화되는 지역이 날로 늘어나 상상을 초월하는 농작물의 감소와 이로 인한 기아와 질병으로 수 백 만 명의 생명들이 죽어가는 있습니다. 먹을 물 한 동이를 얻기 위하여 어린 소년이 수 십 km를 오가야 겨우 흙탕물 조금을 구 할 수 있는 처참한 환경위기의 현장을 TV 를 통하여 보게 됩니다.

지구온난화의 속도가 지금의 속도로 계속된다면 2015년에는 전 세계의 33개 대도시가 영향을 받게 되고, 이 가운데 21개 도시는 치명적인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견하고 있습니다. 이 도시들은 주로 해안에 발달된 영향도 있지만 지대가 낮은 이유도 있습니다. 이 중에는 우리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유명한 도시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방글라데시의 다카를 비롯해 아르헨티나의 부에노스아이레스, 브라질의 리우데자네이루, 중국의 톈진, 이집트의 카이로와 알렉산드리아, 인도의 뭄바이와 카라치, 인도네시아의 자카르타, 일본의 오사카, 고베, 도쿄, 나이지리아의 라고스, 파키스탄의 카라치, 태국의 방콕, 미국의 뉴욕과 로스앤젤레스 등입니다. 이들 도시는 6억 4,300만 명의 인구가 집결된 도시로 전 세계 인구의 10 분의 1이 살고 있는 곳입니다. 이렇듯 환경파괴로 인한 지구촌의 재앙이 깊고 넓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온 세계의 정치지도자, 환경단체, 그리고 UN에서도 매 년 많은 사람들이 모여 수시로 논의를 거듭하고 있지만 마땅한 해결책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구온난화로 인한 지구의 위기는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재앙임을 인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기독교와 환경문제

2005년 4월 8일 서울 도곡교회에서 한국 개신교를 대표하는 세 분의 원로 목사님들이 많은 후배 목사님들과 성도들 앞에서 참회의 기도 모임을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강원용 목사님은 개신교 내의 일체문제와 환경문제에 무관심했음을 참회하면서 “기독교의 중심에는 인간이 있고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생명 중심사상이며, 그 생명의 토양인 지구가 죽어가고 있는데 교회는 아무 것도 하지 못했다.”라고 참회의 고백을 하신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깨끗한 물이 없어 1년에 수 천 만 명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대기오염, 토양오염, 식품오염 그리고 셀 수 없는 발암물질(신물질)로 인하여 수많은 인명피해와 재산의 손실을 당하고 있는 작금의 환경피해를 우리들을 어떻게 보아야 합니까? 물이 있어도 먹을 수 없고 공기는 있어도 마음껏 호흡할 수 없고 음식은 있어도 온갖 독극물질로 뒤범벅이 되어 있어 마음 놓고 먹을 수 없는 오늘의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전쟁이나 테러로 죽는 사망자의 수보다 몇 백 배 아니 몇 천 배 더 많은 인명피해와 경제적 손실을 가져오는 이 환경문제를 교회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으며,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 문제는 교회와 상관없는 국가나 기업이 해결해야 할 그들만의 문제로 교회는 관여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시고 계시지는 않으시겠지요.

하나님의 문화명령

하나님께서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흐뭇해하시면서 저희 인생들에게 당부하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 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창 1:28)”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자연의 관리자로 세워 주셨습니다. 인간들이 필요한 모든 것을 만드셨고, 위험한 것들은 숨기셨으며 꼭 있어야 할 것은 적합한 장소에 합당한 분량으로 완벽하게 창조하시어 저희들에게 안전하게 맡기셨습니다. 우리들이 보기에 하찮은 미생물이나 무생물 까지도 꼭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함께 살아가라고 사이 좋게 살아가라고 당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의 자연은 어떠합니까? 물은 핏빛으로 변하여 먹을 수 없고, 대기는 온갖 먼지와 세균으로 가득 차 쉽 쉴 수가 없습니다. 땅은 온갖 쓰레기와 오염물로 죽어 가고 있습니다. 매일 만나는 먹 거리 속에는 어떤 독성 물질이 들어 있는지 어떤 신물질로 우리를 속이며 생명을 단축시키고 있는지 불안 속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꼭 필요하다고 창조하여 함께 살아가도록 허락한 많은 생물종들이 하루에도 몇 종씩 생태계에서 사라지고 있는 오늘의 현실을 심각하게 돌아보아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일찍이 이런 상황을 예견하시고 이렇게 경고하셨습니다. “내가 땅을 본즉 혼동하고 공

허하며 하늘들을 우러른즉 거기 빛이 없으며 내가 산들을 본즉 다 진동하여 작은 산들도 요동하며 내가 본즉 사람이 없으며 공중에 새가 다 날아갔으며 내가 본즉 좋은 땅이 황무지가 되었으며 그 모든 성읍이 여호와의 앞 그 맹렬한 진노 앞에 무너졌으니(렘 4:23~26)”

왜 이 지경까지 오게 된 것입니까? 인간의 욕심 때문입니다. 탐욕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자유의 한계를 벗어나 자연을 혹사한 결과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셔서 어느 한도까지는 인간의 욕심으로 인한 자연의 남용을 자연 스스로 감당할 수 있도록 자연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들이 자정능력을 초과하여 땅을 파헤침으로 오늘의 위기를 자초한 것입니다. 더 많이, 더 빨리, 더 편하게, 더 큰 것으로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 창조세계를 유린함으로 결국에는 지구를 이 지경이 되게 만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위험하다고 생각하시어 안정한 상태로 만들어 꼭꼭 숨겨 놓은 것을 억지로 찾아내고 농축하여 폭탄으로 만들었습니다. 이 폭탄을 자신의 욕심의 도구로 사용하여 온 인류를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세계 방방곳곳에서는 수많은 과학자들이 새로운 물질들을 만들어 그 성능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신물질들이 어떤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는지 제대로 검증되지 못한 채, 신물질, 신기술이라는 미명하에 더 큰 위험을 쌓아가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기 그지 없습니다. 인간들의 부족한 지혜로 욕심가운데 만든 물질이 완벽하게 창조된 자연에 던져질 때,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심각한 재앙을 가져온다는 사실을 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고유 영역인 생명현상에 이르기까지 인간의 욕심이 침범하고 있습니다. 유전자조작을 통하여 질병에도 강하고 더 많은 수확을 얻을 수 있는 작물을 개발했다고 합니다. 질병을 치료하기 위하여 개나 돼지를 이용하여 인공장기를 양산할 수 있다고 합니다. 쉬지 않고 6km를 달릴 수 있는 슈퍼 쥐 500마리를 만들었다고 자랑합니다. 고양이를 무서워하지 않는 겁 없는 쥐도 만들었습니다. 머지않아 상상을 초월하는 슈퍼맨을 양산할 수 있는 시대가 온다고 장담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오만과 무지가 어떠한 재앙을 초래할지 생각하기 두렵습니다. 죽음의 절벽을 향해 무한 질주하는 오늘의 과학 만능시대 어디서 유래 한 것입니까? 이것은 세상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모든 것을 인간들에게 주시며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격려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리고 자기 욕심 가운데 말씀을 떠난 연고가 아니겠습니까? 이 파멸의 마지막 길에서 지구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경고의 말씀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상을 주시지만, 땅을 황폐케 하는 자들은 멸망시키신다.(창 11:18)”는 하나님의 경고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재앙을 통한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께서서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자신의 뜻을 알려 주십니다. 성경말씀을 통하여 계시하시기도 하시며 자연현상을 통하여도 자신의 뜻을 전해 주시기도 하십니다. 특히 긴급히 전하여야 할 경우에는

여러 가지 재앙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려 주십니다. 나는 환경연구에 참여하면서 하나님의 계시를 때때로 경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자연의 오묘함과 완벽함에 감탄하기도 하며, 인간들이 자랑하는 과학의 수준이 너무나 부족하여 과학으로 인하여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더 많다는 사실에 겸손해 지기도 합니다.

환경파괴의 극심한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나는 문득 유월절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유월절을 기억하고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권고를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세상 재미에 빠져 하나님의 백성임을 망각하고 목적도 없이 생각도 없이 되는데로 살아가던 이스라엘 민족들을 안타까워하시면서 모세를 보내어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그들을 애굽으로부터 구출하여 본향인 가나안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합니다. 말씀에 거역하는 바로에게 내리셨던 열 재앙의 의미를 다시 한 번 돌아보면서 환경재앙의 처참한 모습 속에 내재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망가진 자연의 모습은 열 재앙으로 인하여 파괴된 애굽의 모습을 연상하게 하지 않습니까?

“그 물이 피로 변하고, 하수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며 애굽 사람들이 하수물을 마시지 못하며(출 7:20~21)” 물이 오염되어 먹을 수 없게 된다는 하나님의 계시가 아납니까? 개구리, 이, 파리, 독종에 의한 재앙은 수질오염, 대기오염, 토양오염으로 인한 생태계 교란으로 점철된 자연 파괴의 현장을 생각나게 하지 않습니까? 어두움의 재앙은 대기오염으로 인하여 밤하늘의 별이 사라지고 무지개가 보이지 않는 도시오락의 현실을 말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끝내는 장자의 죽음으로 바로의 손을 듣게 하신 마지막 재앙은 자연 파괴로 인한 인류의 종말을 예고하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으로 들리지 않습니까?

지구를 살려야 합니다

망가진 지구를 살려 건강한 창조 자연으로 회복시켜 후손에게 물려 주어야 합니다. 재앙을 통한 하나님의 경고를 새겨들어 이 땅을 구해 내어야 합니다. 황폐한 지구를 살리는 가장 적합한 방법은 친환경적인 방법입니다. 요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비 신앙인 사회에서 가장 선호하는 단어는 “친환경”이라는 단어일 것입니다. 친환경 농업, 친환경 산업, 친환경 주택, 친환경 음식 등등... 이 용어의 참 뜻을 깨달아 활용하는 것이 환경문제를 해결하는 지름길이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오염된 물을 정화하는 방법에도 요즘 친환경적 방법이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많이 활용하고 있는 수 처리방법은 여러 가지 산화제를 사용하는 방법으로서 처리과정을 통한 화학물질로 2차 오염이 발생하여 또 다른 문제를 일으킵니다. 이런 문제를 제거하기 위하여 친환경적 수 처리법이 대두하였습니다. 친환경적 수 처리법은 곧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자연 스스로가 배출된 오염물을 제거할 수 있는 장치를 해 두신 것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자정 능력을 극대화하는 방법이 곧 환경친화적 방법입니다. 갯벌이나 초지를 이용하여 그 속에 기생하는 각종 생물들을 이용하여 오염물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처리속도가 좀 느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는 하나님의 지혜가 숨어 있습니다. 끝내는 더 큰 유익을 가져오는 것을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이 방법을 믿고 활용하려면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잘 이해하고 순종하여야 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곧 기독교적 세계관을 가진 과학자, 정치인, 기업인, NGO 및 열심있는 헌신자들이 필요합니다.

교회와 성도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있는 처소에서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하여 작은 불편을 감내하는 것입니다. “아니버다 운동”을 통한 자원의 절약운동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필요 없는 전등은 열심히 끄고, 사용하지 않은 가전제품의 전원은 차단하고, 냉방기의 온도는 높이고, 각종 쓰레기는 줄이고 분리수거하며, 재활용 제품은 품질이 떨어지더라도 애용하는 작은 실천들이 모아질 때, 우리의 지구는 서서히 건강해 질 것입니다. 쾌적한 자연 속에서 말씀을 통하여 구원 얻는 백성이 더욱 많아질 것입니다. 땅 끝까지 복음이 전해져 온 세계가 하나님의 나라로 확장될 때까지 그리하여 우리가 고대하는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이 지구는 건강한 상태로 유지 관리되어야 합니다. 우리 다 함께 지구를 살리는 일에 동참합시다.